

# 여성근로의 역사적 배경과 이중역할 (Dual Role) 의 문제점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 이 원 철 · 이 강 숙

본 칼럼은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관하여 다룸으로써 문제의 파악 및 해결에 도움이 되 고자 시도되었다.

## 1. 여성근로에 대한 산업보건학적 관점

여성근로는 다음 몇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가.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여성근로의 양상이 많이 변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성 고유의 독특한 생리적 및 심리적 특징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나.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체격이 작고 힘이 약한 점. 즉 여성은 20세에 남성의 약 65%에 해당하는 근력을 나타내며 이는 점차 감소하여 55세에 이르면 남성의 54%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신장은 8 cm 적으며 체중은 5 kg 가 적다.

다.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지표들이 남성에 비하여 적은 점. 즉 에너지 소비는 남성의 85%이며 20세에 있어서의 최대 산소 소비량은 남

성의 4.1 ℓ/min에 비하여 여성은 2.9 ℓ/min을 나타낸다. 체중당 폐활량( Vital Capacity )은 11%, 혈액소량은 20% 적다. 특히 호르몬의 질적 및 양적 차이는 현저하다.

라. 이러한 차이들로 인하여 작업환경에 처한 여성근로자들은 남성근로자들이 반응하는 양상과는 달리 반응하게 되는 점, 예를들어, 여성은 고열환경에 대하여 남성보다 반응하는 능력이 약하다.

마. 작업 환경이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중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것은 생식(Reproduction)에 관련된 여성구조 및 기능에 대한 것이라는 점, 임신부가 태아를 품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태아는 그 작업환경의 여러가지 위험에 폭로되는 것이다. 산업보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자원의 보존은 현재 일하는 여성 및 남성근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태어날 2세에게도 당연히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남성근로자들과는 다른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성근로자는 산업보건학적인 특별한 관심 및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하여 여성근로자들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장의 보건요원들이 여성근로에 대하여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 역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한편, 매우 복잡해지게 되었다. 과연 이 작업이 여성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일인가? 직업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실제로 남녀가 감수성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 이 작업이 임신 및 태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에 관하여 산업의학적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연구가 시행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유해물질 허용

기준들을 보더라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나 또는 임신부를 위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등 여성근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에 있다.

본 칼럼은 현재까지 보고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에 관하여 다룸으로써 문제의 파악 및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 2. 여성근로에 대한 역사적 이해

### 가. 산업혁명

목축 및 농경이 주된 경제활동이었던 산업혁명 이전의 서구사회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커서 여성근로는 필수적이었다. 이 당시, 요즘 표현대로 남성 봉급생활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적은 액수를 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가족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농경 목축등의 여성활동에 의해 충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경제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여성을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도시화된 마을에서는 농경이 불가능해지고, 대부분이 직물업이었던 가내 수공업도 기계화에 의한 대량생산에 의해 점차 축소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내 수공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10년 이래 취업여성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가 미혼여성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생활비를 벌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히 이들은 기계화된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잡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집안살림을 돕는 가정부로 취업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근로자들은 기계화된 공장에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변

화하는 과정에서 여성근로자의 수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으나 경제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은 중요성을 잃게 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남성 근로자들이 전쟁에 참전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취업이 세계대전전의 30%에 비하여 38%로 급증하였다. 전쟁이 끝난후 산업장이 다시 남성근로자들에 의해 채워지고 출산이 급증(Baby Boom)하여 여성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비율은 30% 이하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해방이후 근대화 추진으로 사회의 각 측면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근대이전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가정밖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은 금기시 했고 사회여건상으로도 불가능하였다. 예외적으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침모, 광대, 무당, 기생 등으로 주로 천민계급에 한정되어 있었다. 구한말 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공장이 세워지면서 최초로 여직공을 모집하였고, 학교의 설립과 함께 여교사도 채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료분야에서 외국에 유학한 의사와 간호원, 산파들이 등장했고, 일본인 사회에서 여사무원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여성들이 선구자로서 사회에 참여하여 취업활동을 시작한 이래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여성 취업이 증가한 것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에 따른 정부의 산업화정책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 나. 한가한 여성 (The leizured Woman)

물론 모든 여성이 위와 같은 산업활동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산업혁명은 그전에 농경사회에는 없던 새로운 계층인 중산층을 형성하였

다. 역사상 처음으로 도움없이 남성 혼자서 가족을 부양할만한 수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성은 직장을 나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한가한 여인”은 새롭게 형성된 중산층의 부를 상징하는 새로운 집단으로 부각되었다. 여성의 한가로움이 곧 남편의 성공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집안이 안정되었다는 것, 지켜온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등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형성은 이후 여성들이 취업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억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다. 모성에 대한 신성화

모성을 신성화한 이 당시의 사조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에의 진출을 억제한 또한가지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결혼한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요구사항이었으며, 한 자녀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한하고 오로지 자녀들에게만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 요구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으로 많이 바뀌었으나 대부분 여성들의 마음 한구석에 이러한 관념이 남아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유아기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이론등을 포함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심리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취업여성의 자녀가 특정한 정서적 사회적 및 지적 결함을 보인다는 과학적인 근거 또한 없다. 실제로 자녀들의 사회적 심리적 발육상태가 모성의 취업과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나쁜 영향인지 혹은 좋은 영향인지에 대하여 학자들도 확실한 견해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립된 견해가 발표된다면 이는 가능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함

으로써 취업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막연한 죄책감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라. 여성인력의 재투입

사회의 변화는 규범의 변화를 빠르게 동반하였고, 한가로운 여인에 대한 풍조는 점차 사라지고 여성의 일터가 가정에서 산업장으로 점차 이동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유발시킨 요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다음 몇가지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예전의 여성들이 감당했어야 하는 일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즉 가족수의 감소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주었고, 사회경제의 발전은 일반인들의 생활 특히 가정주부의 일들을 쉽고 간편하도록 변화시켰으며 의학의 발달은 건강한 생활 및 수명의 연장을 가져다 줌으로써 여성들에게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만한 기회를 주게 된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Stellman*은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실제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이러한 이유들로만 설명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1910 ~ 1960년대에 걸쳐 이미 자녀 출생수가 1 ~ 2명에 이르러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당시 이미 여성들이 35세가 되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어느정도 감소되었었다는 것이다. 위 설명대로라면 이미 1910년대에 여성인력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것이 *Stellman*의 지적이고 또한 실제로 여성 인력이 증가한 1960년대에 경제활동에 참가한 여성인력은 오히려 이런 자녀들을 양육중인 상태에 있는 기혼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등을 들어 가족수의 감소가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게 하여 여성인력의 참여를 증가시켰다는 설명이 적합한 해석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이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여성인력이 산업장에 투입될 수 있었다는 설명 역시 현대의 여성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여러가지 이론들, 자신들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막연한 회의, 높아진 위생관념으로 인한 강박관념, 능숙한 요리사가 되려는 욕구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없는 생활을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물론 일리는 있으나 앞에 언급한 일반적인 견해가 여성취업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핵가족화 또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남성이 혼자 경제적 수입에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여성이 함께 책임을 지면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1976년 2월 *Wall Street Journal*에 실린 다음과 같은 문구는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여성들이 일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 갑자기 끊긴다면 국가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생활수준’은 하루밤 사이에 붕괴되고 말것이다... 지난 1975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여성인력이 취업하였다. 봉급을 타지 않는 아내를 가진 가장은 생활을 더 조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의 산업화정책 및 고용증대정책등도 취업여성을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여성취업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면서 집안에서의 아내 및 모성으로서의 역할이 변하지 않게 되면 여성은 2가지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핵가족화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아내 및 모성의 역할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

은 취업여성이 부닥치게 되는 문제의 일면을 제기하고 있다.

**마. 이중역할의 딜레마**

노동인력에 여성이 참여하는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이는 고조되어야 하며 동시에 산업장과 가정에서 겪게되는 2중부담의 문제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가사에 대한 노동력은 시장상품과 같이 팔거나 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품가치로 규정될 수 없었고 자연히 노동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가정부가 직업으로 등장하면서 여성의 가정일이 시장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을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계속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이 **Stellman**의 주장이다. 실제로 주부의 일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단조롭고, 자극이 없는 완전히 수궁할만하지 못한 성질의 것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작업이 지니는 특성을 모두 지닌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학자인 **Ann Oakley**의 조사는 “주부의 일이란 완성되는 적이 없다”라는 격언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현재의 주부들은 할머니 세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주당 7일, 60~70시간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표 1은 주부의 주당 작업시간에 대한 시대적 변천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는 기대수준의 향상을 들 수 있다. 현대 사람들은 예전에 비하여 더 많은 종류의 옷을 지니는 동시에 더 청결하고자 하니 자연히 더 많은 세탁을 요구하게 된다.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가 많아진 것은 틀림없으나 동시에 관리해야할 소유물의 종류도 많아졌다.

메스컴의 발달과 광고의 범람으로 인하여 메스컴을 통해 반영되는 프로그램내의 생활수준에도달하려고 하는 막연한 강박관념이 주부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됨으로 인하여 작업량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의복이나 음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으나 이제는 이렇게 집에서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경제적이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작업량의 감소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나 소비하는 것 보다는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충족감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성들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활동에 의한 충족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표현도 가능하여 진다. 직장과 가정 두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작업량은 더 많아지고 충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질의 노동은 일부 없어져 버렸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직장에 나간다고 하여도 퇴근후의 집안에서의 일이 분담되어 수행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표 2는 이러한 경향을 나

**표 1. 가사노동시간 ( Housework Hours )의 시대적, 국가적 비교**

구 분	연 도	평균주당 가사노동 시 간
농·어촌		
미 국	1929	63
미 국	1956	61
프 랑 스	1959	67
도 시		
미 국	1929	51
미 국. 소도시	1945	78
대도시		81
프 랑 스	1948	82
영 국	1950	70
영 국	1951	72
프 랑 스	1958	67
영 국	1971	77

( 자료 : **Stellman**, p.18, 1977 )

타내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여성은 주당 약 80 시간을, 남성은 주당 약 50 시간을 노동하고 있는 셈이다.

표 2. 도시근로자들의 가사노동시간 ( Household hours )에 관한 남·녀 비교

구 분	여 성	남 성
핀 란 드	4 시간/일	2시간이하/일
프 랑 스	3.2 시간/일	1.2시간/일
일 본	3 시간/일	1시간이하/일

( 자료 : Stellman, p.20, 1977 )

Stellman은 이를 빗대어 현대여성은 영원히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외 근무 ( permanent, unpaid overtime )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젊은 부부에서 가정내의 일들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으나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를 돌보는 문제는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스케줄대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으로만 해결되지는 못한다. 자녀양육은 표현상 여자의 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수입이 많은 점 등은 비록

현대여성들이 예전 농경시대에서와 같은 경제적 인 위치를 점차 회복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안 일에 부담을 지니게 함으로써 여성근로를 이해하는데 파악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 참 고 문 헌

1. Stellman JM : Women's Work, Women's Health-Myths and Realities, Pantheon Books, 1977.
2. Hunt VR : Work and the Health of Women, CRC Press, 1979.
3. Zenz C : Development in Occupational Medicine, Part Two : Women at Work, Year Book Medical Publications, 1980.
4. ILO : Encyclopa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rd ed. ILO, 1983.
5. 한국여성개발원 : 女性白書, 한국여성개발원, 1985.
6. Fox. MF & Hesse-Biber, S : Women at Work, Mayfield Publishing Co., 1984.

熱情의 洗禮를 받지도 않고서 自然의 成果만 기다리는 신령아! 眞理를 따라가는 한 갈래 길이라고 자랑삼아 안고 있는 너희들이 그 理智는 自然의 智慧에서 깨운 것이 아니라 人生의 範疇를 縮製함으로써 自滅的 自足에서 끊어모은 妄想이니 그것은 眞도 아니오 善도 아니며 더우든 美도 아니오 다만 邪惡이 生命의 탈을 쓴 것뿐임을 여기서도 짐작을 할 수 있다.

— 清涼世界 中에서 —